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 보타와 무어의 초기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xpressional Features of the Existential Placeness

- Focused on the early housing of M. Botta and C. Moore -

박형진* / Park, Hyung-Jin
김문덕** / Kim, Moon-Duc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placeness of the living space on the basis of Schulz's existential space and inquires into the expressional features of placeness by analyzing cases. Results of this study have shown that placeness of living space is formed by three factors as follows. First, the living space with placeness maintains inner order which structuralizes surroundings. Second, it expresses its identity through innate shape that reflects surroundings. Third, inner space has innate identity and it is much related to characteristics personality of a resident,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t is as follows that concrete features of existential placeness shown in analyzing cases of Botta and Moore's works.

There are concrete expressional features of placeness in the housing of Botta, and one is to keep order of inner spac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axis reflected surroundings. Another is to show existence feeling as the shape of a stable singular mass with surroundings and regional properties. The third is to value innate features of each space inside housing and particularly to acquire placeness as combining phenomenological characteristic of light.

There are concrete expressional features of placeness in the housing of Moore, and first, strong centrality formed in the inside is emphasized as extending to outside environment. Second, existence feeling is acquired as familiar form using the shape and material considered surroundings. Third, the personality of a resident is positively reflected in the design. Besides, placeness is acquired by goods and furniture as positively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sides.

키워드 : 슐츠, 실존적 공간, 장소성, 주거 공간, 보타, 무어

Keywords : C. N. Schulz, Existential space, Placeness, Living space, M. Botta, C. Moo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무어(C. Moore)는 19세기의 도시계획이나 20세기의 사무실 건물에 나타나는 엄격하고 균질한 기하학적 그리드에 의한 근대적 공간개념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중요한 순서와 질서를 발견할 것을 주장한다.¹⁾

슐츠(C. N. Schulz)는 2차 대전 이후 여러 정주지에서 관찰되는 단조로움과 추상적 성격을 장소의 상실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근대의 추상적 공간이 야기하는 환경적 자극의 빈곤은 인간에게 소극성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지적인 수용력을 축소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²⁾

위와 같은 견해들은 과학적,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근대건축에 나타나는 전체적, 획일적 공간에 대한 비판이며, 건축을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간은 인간에게 체험되는 것이며 인간과 공간은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근대 이후에 인간의 지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하는 건축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이는 주변 환경과의 융합, 장소성의 존중, 토착성, 전통에 뿌리를 둔 형태, 인간이 개입된 건축, 인간의 경험적 속성 등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건축 개념이다.³⁾

* 정회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겸임교수

** 전임회장,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교수, 건축학박사

1) Charles Moore, Gerald Allen and Donlyn Lyndon, 정혜선 역, 주택의 장소성, 태림문화사, 1996, pp.193~209

2) C. N. Schulz, 민경호 외 3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전술한 슐츠는 인간 존재의 측면에서 공간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인간이 공간에 대하여 흥미를 갖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실존적 의미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존적 건축은 인간과 인간의 환경 사이에서 안정된 쉼마(Schema), 환경의 이미지를 이룬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존적 공간 개념은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건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장소성 이론은 실존적 공간의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장소는 삶이 일어나는 공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슐츠는 장소성의 회복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환경으로서 정주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주거공간은 인간의 정주지로서 장소성의 특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근대 이후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소의 상실에서 비롯된다는 슐츠의 주장은 현대도시의 주거문제의 해법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도시주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단계의 연구로서 슐츠의 실존적 장소성 개념을 토대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장소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거사례를 통해 장소성의 구체적인 표현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슐츠의 실존적 공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장소성 이론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사례를 분석하여 장소성의 구체적인 표현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우선 슐츠의 저서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실존적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된 장소성의 개념을 파악한다. 슐츠는 장소성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이와 관련된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추상적 측면과 구체적 측면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 측면의 정체성은 주거 외부의 형상과 내부 공간의 복합적 성격·분위기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슐츠의 장소성 이론을 토대로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게 된다.⁴⁾

3장에서는 위의 세 가지 측면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주거사례를 분석하여 장소성의 구체적인 표현 특성을 고찰하게 된다. 주거의 사례는 설계방법론으로서 장소이론을 응용한 보타와 무어의 작품 중에서 선정하였다. 보타의 카데나조 주택(Cadenazzo House, Ticino, 1970-1971), 슈페리온 주택(Superior House, Ticino, 1982-1983)과 무어의 오리ندا 본인의 주택(Moore House, Orinda, 1962), 본햄 주택(Bonham House, California, 1962)은 두 작가의 특징적인 장소성 개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주택이다.⁵⁾

2.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장소성

2.1. 슐츠의 실존적 공간으로서의 장소성

슐츠는 건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실존적 공간의 개념을 도입한다. 슐츠가 제시한 실존적 공간이란 유기체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하여 쉼마(Schema)⁶⁾를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존적 공간의 구체화는 모입과 사물의 개념에 의해 설명된다. 건축물이 주변의 사물을 모으는 초점으로 작용하여 주변 환경을 통합함으로써 공간은 인간의 실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전의 건축공간에 대한 이론들은 건축을 물리적 공간으로 다루거나 건축을 단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사고나 지각적 측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슐츠의 실존적 개념은 인간 존재의 차원에서 공간을 바라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⁷⁾

슐츠는 실존적 공간에 대한 이론을 세우거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구체적인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즉, 각각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고유의 중심과 방향을 갖고 영역을 형성하는 추상적 측면과 지리, 경관, 도시, 주거, 기물의 단계를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존적 공간의 구체화는 장소의 혼 또는 장소의 정신이 가시화된 것을 의미한다.⁹⁾ 이는 실존적 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장소성 이론을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의미의 장소는 실존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추상적인 위치 이상의 어떤 것으로서 물질, 형상, 재질, 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장소의 구조는 경관과 정주지로 이루어지며 실존적 공간의 파악과 마찬가지로 추상적 측면의 공간과 보다 구체적 측면의 성격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효하다. 공간은 장소를 형성하는 3차원적 조직을 의미하며, 성격은 어떤 장소가 지니는 포괄적인 분위기를 뜻한다.

슐츠는 실존적 공간의 건축적 표현인 장소 개념을 집약한 저서 「거주의 개념」에서 추상적 측면인 공간과 보다 구체적인 측면의 성격을 정의와 정체라는 용어로 재정의 한다.<표 1>¹⁰⁾

정위는 추상적 성격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외부환경에 대한

5)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3.1. 사례 선정의 기준」 참조

6) C. N. Schulz, 정영수 역, 건축론, 세진사, 1987, pp.46~60

일반적으로 도식(圖式), 도해(圖解)의 의미이나 슐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유기체의 전형적인 태도 혹은 반응으로 정의한다.

7) C. N. Schulz, 이재훈 역, 거주의 개념, 태림문화사, 1995, pp.16~20

8) C. N. Schulz, 김광현 역,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2002, p.32

9) C. N. Schulz, 앞의 책, 2001, pp.11~28

10) C. N. Schulz, 앞의 책, 1995, pp.16~22

내부의 관점에서 대지-하늘과 외부-내부의 범주에서 장소를 형성하는 어떠한 특별한 공간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원초적 공간과 관련하여 중심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심은 땅과 하늘을 잇는 수직적 세계의 축으로 경험되어야 하며, 중심과 축은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정위는 중심과 방향에 의해 영역으로 환경을 구조화하고 공간을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는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서 사물의 이해를 통해 세계를 얻어내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거주를 통해 실존적 의미를 구체화시키는데, 이는 건축적 형태가 어떻게 서 있고, 솟아 있고, 열려 있고, 닫혀 있고, 투영하고 있는가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내부공간의 복합적인 성격, 분위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체화된다. 정체는 인간과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며 환경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대지 위에서 환경과 인간은 하나가 되며, 포괄적인 총체성의 부분이 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경계는 정위와 정체의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건축물의 위요와 개방을 결정하는 경계는 특히, 개구부를 통해 외부환경과 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정위의 측면에 영향을 끼치며, 경계의 의장적 측면은 공간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정체와 연관성을 지닌다.¹¹⁾

<표 1> 숄츠의 이론을 토대로 한 장소성의 구조 파악

구분		구체적 내용
추상적 측면	공간의 조직과 관련	내부의 특별한 공간 구조를 의미 (대지-하늘, 수평-수직, 외부-내부) 환경을 구조화하여 내부에 반영 (중심, 방향, 영역) 경계의 개구부와 관련
	정위	
구체적 측면	성격·분위기와 관련	외부환경을 반영하며 인간의 존재감을 표현 (총체적 의미의 실존적 공간을 의미) 환경을 통합하는 역할 (어떻게 서 있고, 열려 있고, 닫혀 있고, 투영하는가) 내부 공간의 복합적 성격, 분위기 (공간의 성격, 거주인의 개성, 환경·심리적 측면) 경계의 의장적 측면과 관련
	정체	

2.2. 실존적 의미의 주거공간의 장소성

숄츠는 장소를 형성하는 구체적 측면의 성격, 분위기를 실존적 공간의 총체적인 현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는 첫째로 건축물의 구체적인 외부 형상이 주변의 환경을 반영한다는 관점과 둘째로 주거내의 구체적인 내부공간이 지닌 고유의 복합적인 성격과 거주인의 환경,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한 관점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¹²⁾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의 구

11) C. N. Schulz, 앞의 책, 2001, p.21

12) C. N. Schulz, 앞의 책, 2002, p.163 / C. N. Schulz, 앞의 책, 1995, pp.17~20, pp.100~108

숄츠가 「거주의 개념」에서 실존적 장소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언급한 정체성은 환경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장소의

체적 측면을 포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장소성 이론을 정리하게 된다.

첫째, 추상적 측면에서 내부의 공간조직과 관련하여 실존적 의미의 장소 이론을 접근한다. 둘째, 총체적 의미의 실존적 장소성은 주거를 중심으로 외부환경을 모으는 것이며, 이는 외부의 형상적 측면으로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셋째, 내부 공간에 나타나는 복합적 성격, 분위기를 파악하게 된다.

(1) 주거 내부의 공간 구조¹³⁾

인간이 만든 공간이 장소성을 지닌다는 것은 내부 공간의 문제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정주지는 위상기하학적인 관계를 갖는 폐합성에 의하여 내부공간이 한정되며, 반드시 어떤 특별한 내부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정주지로서 보다 구체적인 장소를 형성하게 된다.

술츠는 중심, 방향, 영역 등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하나의 안정된 스펀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장소를 형성하는 정위는 중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물을 모으는 역할로서 중심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는 수직·수평의 방향성을 내포하며, 하나의 영역을 형성한다. 정위는 중심과 방향에 의해 영역으로 환경을 반영하고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의 내부공간이 중심과 축에 의한 질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숄츠의 초기 이론에서부터 나타나는 기본적인 관점이다.¹⁵⁾

중심에 대한 관념은 인간의 근원적, 본능적 공간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외부환경과 교류하게 된다. 정주지의 장소적 특성을 부여하는 중심의 역할은 구심적, 원심적 장소성을 이루고 있다. 주거에 나타나는 구심적 장소는 거실의 벽난로, 공간의 조형물 또는 가구 등이며, 무어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에디컬러(aedicular)와 새들 백(saddle-bag)¹⁶⁾ 개념은 원심적 장소를 이루는 대표적인 예이다.

어떠한 중심을 지닌 장소도 방향성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의 장소는 수평과 수직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반경으로서 내부와 외부, 대지와 하늘이라는 초현실적인 범주를 구성한다. 방향성은 인간의 정주지와 경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늘과 관련하여 주거공간에 신성한 차원의 장소성을 부여한다. 주거 내의 각 공간의 고유 특성과 심리적 측면이 함께 작용하여 지하실과 다락방 등에서 특별한

혼」에서 장소성 획득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한 성격(Character)과 유사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에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측면을 연구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 고찰하였다.

13) C. N. Schulz, 앞의 책, 2002, pp.132~136

장소성은 내부공간에 중심이 존재하고 한정된 영역성을 지닌 공간에서 파악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이는 미스로 대표되는 근대 건축의 유동적 내부공간에 대한 이론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위의 책, pp.33~55

15) C. N. Schulz, 앞의 책, 1987, pp.191~193

16) 새들 백(saddle-bag) :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매다는 주머니

장소를 형성하기도 한다.

주거의 장소에서 영역은 위요(圍繞)에 의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장소의 성격과 공간적 성질은 어떻게 위요되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위요의 방법은 건축물 경계의 벽체와 개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벽체의 위요와 개구부는 공간에 중심과 방향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축을 만든다. 건축물의 경계를 형성하는 개구부는 외부의 환경을 끌어들이어 상이한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건축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간적 구조들은 중심화와 축의 방향성, 이들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실존적 의미의 주거의 형상

장소를 형성하는 정체성은 3차원적인 조직을 의미하는 공간에 어떤 장소가 가지는 가장 포괄적인 성질이 관여한 최종적인 일반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공간보다 더 구체적인 개념이며, 포괄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장소의 성격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의 역할에 의해 구체적인 장소가 생성된다.

실존적 의미의 주거는 인간이 땅 위에 있는 방식이 구체화된 총체적인 모습으로서 인간은 땅과 하늘 사이의 존재의 한 방식을 정의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 표현은 사물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외연적이며 형상적인 모습이다.

주거의 형상을 결정하는 정체성은 거주자의 의미를 사물의 모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땅과 하늘의 존재, 주변 환경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거의 장소성은 인간의 구성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인간의 정주지와 관계하는 외부의 자연환경, 즉 자연장소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¹⁷⁾

첫째, 하늘과 대지의 강력한 이미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한 자연의 사물들인 산, 숲, 바위, 식생, 물 등이 장소를 의미 있게 만들며, 인간의 정위와 정체성의 대상으로서 작용하여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둘째, 고대 이래로 우주적 질서 체계로서 이해되고 있는 태양의 행로에 기초를 둔 동서남북의 방위는 세계가 구조화된 공간으로서 이해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소 감지하기 힘든 자연요소로서 빛은 고대인들에게 태양에 주위를 집중하게 하였다. 넷째, 빛은 자연을 이해하는 자연의 시간적인 리듬을 만들어 낸다. 즉, 빛은 항상 변화하는 요소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변화하며, 밤과 낮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계절은 각 장소들의 모습을 변하게 한다. 시간은 자연의 리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주기에서 경험되는 현상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¹⁸⁾

17) C. N. Schulz, 앞의 책, 2001, pp.33~39

18) 류효창, 실내공간에서의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7호, 1996.4, pp.57~58

경과적 의미의 시간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과 심리적 요소와 관계

구체적인 주거의 형상적 질은 대지와 하늘 사이의 관계에 따라 네 가지 경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세워진 형태가 명확히 정의된 요소로서 대지와 하늘 양쪽으로 드러난다. 둘째, 형태가 대지와 하늘 양쪽으로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한다. 셋째, 명확한 기반을 갖고 하늘 쪽으로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한다. 넷째, 땅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하늘 쪽으로 명확한 형태를 지닌다.¹⁹⁾

기단과 지붕을 포함한 전체적인 주거의 형상뿐만 아니라 재료, 시공법, 특히, 영역을 형성하는 벽체의 의장적 형태가 외부 환경을 형상화시키고 모은다. 이는 단순히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반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더한다는 의미이다.²⁰⁾ 다시 말해서 인공장소의 의미들과 구조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반영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을 분위기나 성격으로 표현하며 환경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3) 주거 내부 공간의 복합적 성격과 분위기

실존적 개념의 주거공간의 장소성의 구체적 측면은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 외부의 형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완성된다.

주거는 사회적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소이며, 개인적 정체성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주거는 사적 공간이며 친근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성격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다.²¹⁾ 주거의 현관, 거실, 침실, 주방 등은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구별되는 행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다.

주거의 장소성은 거주인의 개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주거에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 그들의 정신, 꿈 등 무형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거의 각 부분은 거주인의 생활이 스며들어 있고 총체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²²⁾ 거주인이 주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발견되었을 때 장소의 성격은 강화된다.

주거의 장소성은 환경, 심리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내부공간에서의 건축적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 있다. 장소의 성격은 거주자와 그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런 상호작용에는 거주인의 감성적, 심리적 요인들이 개입한다.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로는 통제, 프라이버시, 주체성,

가 깊다. 때의 의미의 시간은 외부와 내부 환경의 조화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19) C. N. Schulz, 앞의 책, 1995, p.132

20) 위의 책, pp.23~24, p.102

21) 위의 책, pp.95~97

슬츠는 “사적주거의 친근한 만남은 사랑에 기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22) C. Moore, 앞의 책, pp.193~209

무엇든 좋은 주택은 거주인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꿈에 접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주택의 꿈의 질서라고 하였다.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주택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 질서, 다양성, 심미성, 선택, 사회성 등이 있다.²³⁾

주거의 내부공간의 환경적 쉼마는 추상적 측면의 중심화, 연속적인 경계, 방향성, 개구부, 지표적 요소 등의 1차적 요소와 이 1차적 구조를 강화하거나 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례, 텍스처, 색채, 조명과 같은 의장적 측면의 2차적 요소에 의해 완성된다.²⁴⁾

또한 주거의 내부공간의 장소성은 가구, 기물의 단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계가 인간의 환경, 심리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거에서 이들의 단계는 전통적인 핵으로서의 난로나 침대, 가족의 식탁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거의 어떤 특별한 분위기를 갖게 한다.

3. 사례 분석

3.1. 사례 선정의 기준

본 연구의 사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구체적이며 다양한 표현 경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자연경관에 접한 주거의 사례를 선정하였다.²⁵⁾

둘째, 본 연구에서 제기된 장소성 이론이 근대 건축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초기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모더니즘이 붕괴되는 시점 이후에 건립된 주거를 대상으로 하였다.²⁶⁾

셋째, 설계 방법론적 측면에서 장소성 개념을 강조한 보타와 무어의 주거 중에서 대표적인 두 작품을 선정하였다.

스위스 티치노(Ticino) 지역의 보타의 단독주택들과 무어의 초기의 단독주택들은 뚜렷하게 다른 자연경관을 접하고 있다. 또한 설계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타가 주변 환경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강한 형상적 측면을 중요시한 반면에 무어는 거주인의 개성 및 역할과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보다 중요시하는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두 작가의 주택들은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의 다양한 표현양상을 고찰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23)Stuart Miller & Judith K. Schlitt, 류호창 역, 실내디자인과 환경심리, 유펜문화사, 2000, p.13

24)C. N. Schulz, 앞의 책, 2002, p.163

25)오늘날의 도시는 자연을 직접 개척하는 것은 드물며, 역사적, 공동적으로 형성된 기억이 적용된 장소이다. 슬츠는 자연 경관에 접한 주거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속의 주거에서도 장소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시환경속의 주거의 장소성에는 자연 경관 보다는 문화적 영향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시 주거의 장소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이론이 필요하다.

26)주거공간의 장소 이론은 라이트, 알토 등의 근대 건축가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가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성의 상실과 회복의 문제가 근대 이후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된다는 측면에서 근대 직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카데나조 주택(Cadenazzo House, Ticino, 1970-1971)은 리바산 비탈레 주택(Riva San Vitale House, 1971)과 함께 보타의 대표적인 초기의 작품이다. 위의 초기의 두 작품에는 전형적인 주택의 이미지의 형성과정이 보다 자유로운 건축언어로 나타난다. 슈페리온 주택은 이 지역에 세워진 일련의 주택들의 전형적인 형상을 지니며, 주변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재료의 물성과 구성방식의 측면에서 건축 이미지가 완성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카데나조 주택과 슈페리온 주택은 각각 보타의 건축언어의 초기의 형성과정과 그것의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소 이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무어 본인 소유의 오리다의 주택(Moore House, Orinda, 1962)은 장소 이론의 구체적 실현을 목적으로 세워졌다.²⁷⁾ 본햄 주택(Bonham House, California, 1962)은 주변의 환경을 수용하면서 간결한 방법으로 내부의 중심공간을 강조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이며, 거주인의 개성과 조건을 반영하여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위의 두 주택을 통해 무어의 장소 이론의 구체적인 표현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2. 보타 주택의 장소성 구현

보타는 건축을 '어느 고유한 장소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²⁸⁾ 이것은 건축이 장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그것에 얽힌 기억을 재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건축은 그 건물이 위치한 '바로 여기'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출발하며, 문화적·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장소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를 비롯한 티치노에 세워진 일련의 주택들은 주어진 세계로서 그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²⁹⁾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자연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실존적 의미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적 전통을 고수하는 보타의 건축적 철학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일반적으로 고전적 건축은 짓는 장소보다 오히려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의 건축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독립된 탑(塔)의 형상은

27)Eugene J. Johnson, 박형진·최두원 역, 찰스 무어 건축과 평론, 공간에술사, 1991, p.9

28)GA Document, pp.7-9, 이호진·김신주 역, 세계의 건축가 1 MARIO BOTTA, 건우사, 1985, p.8에서 개인용

29)티치노는 알프스 산맥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하여 유럽의 남쪽과 북쪽이 만나는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그 곳은 보다 남쪽을 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푸른 하늘과 녹지가 넘쳐 거의 열대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밀리 주변의 험준한 산들은 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며, 루가노 호수의 경관은 이러한 대지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경관은 강력하면서도 목가적이며, 다양하면서도 안정된 분위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30)이탈리아 지방의 고전적 건축이 수세기에 걸쳐 주변지역의 교회 건축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고전적 건축의 영향 역시 티치노 지방의 지역적 특성과 폭넓은 문화적 유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연과의 융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과 대치한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그러나 강한 형태가 항상 장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전적 건축언어는 대지의 상황과 어우러져 변화하며, 보편적 질서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적 성향³¹⁾과 고전주의 건축에 대한 관심은 그의 건축을 과거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보타의 건축은 미래지향적이다. 그것을 위해 본질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적 전통과 사물이 갖는 고전주의적 건축의 질서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보타의 건축은 표면적인 역사주의를 지양한다. 이 지역의 유형적인 특성을 이어 받아 건축적 모티브로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주변의 자연적 특성을 더 깊이 파악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치를 환기시킨다.

(1) 카데나쑈 주택(Cadenazzo House, Ticino, 1970-1971)

스위스 티치노 지역에 세워진 보타의 최초의 주택인 스타비오 주택(Stabio House, Ticino, 1967)에서부터 브레간조나 주택(Breganzona House, Ticino, 1988)까지 일련의 주택들은 이 지방 특유의 장소성을 일관된 이미지로 반영하고 있다. 카데나쑈 주택은 스타비오(Stabio)의 최초의 단독주택(1965)³²⁾에 이은 보타의 두 번째 작품이다.



a) 북서쪽 전경 b) 동쪽 전경

<그림 1> 카데나쑈 주택의 전경

(출처 : Emilio Pizzi, BOTTA · The Complete Works, Artemis, 1993, p.23)

주변의 존재감 있는 산맥과 대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직선형 평면을 취하여 축에 의한 내부공간의 질서를 구축한다. 또한 북측 외부 입면의 두 개의 커다란 개구부³³⁾는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개구부 전면의 테라스는 주변 환경과 주택 내부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며, 테라스 주변에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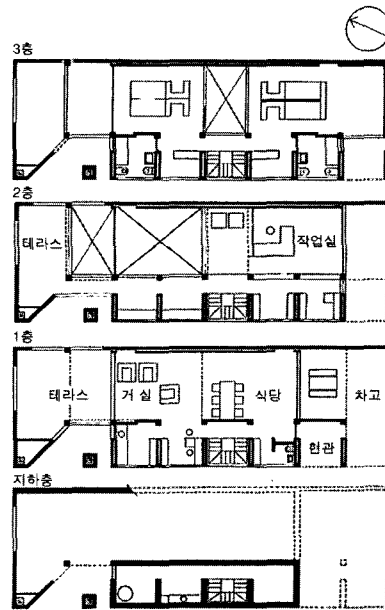
31)이호진·김선주 역, 앞의 책, pp.9-10

티치노 지역의 전통적 주택들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남쪽과 북쪽 지방의 건축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의 전형적인 주거는 돌을 쌓은 육중한 1층 부분 위에 박공의 목조구조가 올려져 있다. 이는 남쪽 건축의 견고함·안정감과 북쪽 건축의 투명감·상승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것이다. 이 두 개의 볼륨은 정면의 파사드에 만든 수직 틈에 의해 일체화된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전통적 건축물들은 단순하고 직접하여 좌우대칭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32)스타비오의 최초의 단독주택(1965)은 보타가 포르뵈체를 만난 직후 지어졌다. 전체적으로 개방된 형태의 건축적 구성, 발코니와 정원을 잇는 계단, 돌출된 매스,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 등 전후(戰後) 포르뵈체의 건축적 어휘가 그대로 담겨있다. 이 최초의 주택에서는 후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보타 건축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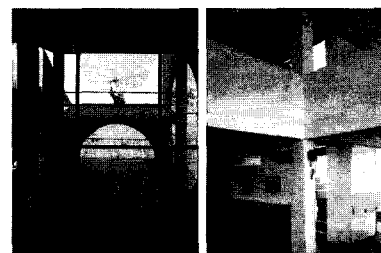
33)보타의 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이러한 커다란 개구부들 역시 루이스 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보타는 그것을 주거와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택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된 보이드 공간은 지하층을 제외한 3개 층을 수직적으로 통합한다. 이는 주변 환경으로 향한 남북의 수평축과 더불어 주택 내부의 질서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1, 3-(a)>³⁴⁾



<그림 2> 카데나쑈 주택의 평면도
(출처 : 이호진 역, 앞의 책, p.23)

진부하게 계승되어온 주변의 건물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a)북쪽 테라스 전경 (b)서쪽 유리 벽면

<그림 3> 주택 내부 전경

(출처 : 이호진 역, 앞의 책, pp.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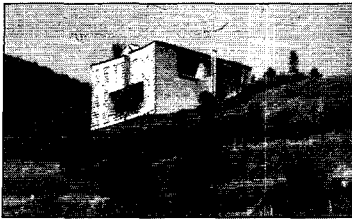
주택의 동쪽은 테라스에 면한 또 하나의 개구부를 제외하면 완전히 막힌 벽체로 구성된다. 주거의 내부는 거실, 방, 작업실 등의 주요 공간이 동쪽에 위치한다. 폐쇄적인 동쪽의 외부 벽체와 주거 내부의 중앙을 가르는 남북 방향의 주랑과 벽체의 조합에 의해 주거의 각 영역이 규정된다<그림 2>. 반면에 주택의 서쪽에는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부속 공간이 위치하며 전면이 유리블록으로 마감되어 있다. 외부 벽체의 유리블록과 개구부를 통해 석양이 들어오게 된다. 석양은 중앙의 기둥과 벽체에 의해 적절하게 차단, 유입되어 동쪽에 면한 주요공간까지 이르게 된다. 주거의 각 공간을 위요하는 벽체와 가구, 기물은 하루의 시간성을 내포하는 석양의 감성적 느낌과 함께 주거의 각 공간의 장소를 형성한다<그림 3-(b)>.

(2) 슈페리온 주택(Superion House, Ticino, 1982-1983)

티치노 지역에 세워진 마리오 보타의 일련의 주택은 프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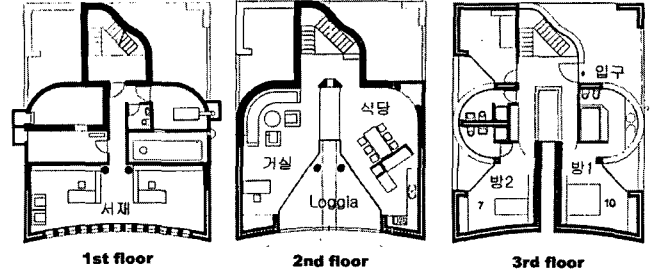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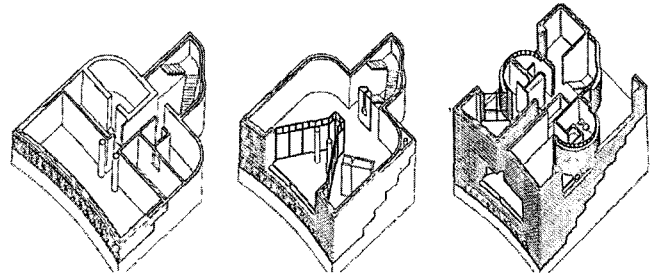
34)이러한 주택 내부의 수직성은 바로 다음에 세워진 리바 산 비탈레 주택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며, 이후 보타 주택의 로지아 주변에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소나 주택(Pregassona House, 1980)에 이르러 비로소 그 전형



<그림 4> 슈페리온 주택 남동쪽 전경
(출처: Emilio Pizzi, 앞의 책 p.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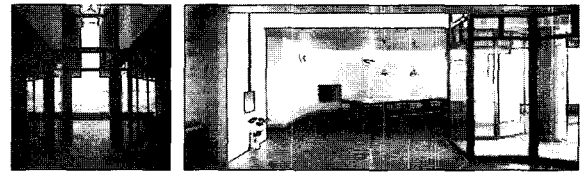
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후 마사그노 주택(Massagno House, 1981), 비가넬로 주택(Viganello House, 1981), 스타비오 주택(Stabio House, 1982), 오리그리오 주택(Origlio



<그림 5> 평면도와 투상도(출처: Emilio Pizzi, 앞의 책 pp.140-141)

House, 1982), 슈페리온 주택(Superion House, 1983)을 거치면서 보다 건축의 전형성은 다양한 양태로 표현된다.

슈페리온 주택의 3층을 통해 내부로 진입하면 상부에 빛을 유입하기 위한 삼각형 천창(sky-light)이 있다. 그것은 정면 파사드의 수직 틈을 지나 아래층에서 넓은 개구부를 형성한다. 2층의 거실과 식당은 이 파사드의 개구부를 통해 정면에 보이는 평야를 접하게 된다. 옥상의 천창을 통해 유입된 빛은 2층 거실과 식당까지 이어지며 내부를 환하게 비춘다. 전체 내부 공간은 천창으로부터 시작되어 정면의 커다란 개구부에 이르는 수직성에 의해, 그리고 2층의 거실, 식당, 로지아 그리고 주위의 평야를 연결하는 수평성에 의해 통합된다<그림 5, 6>.



a) 외부전경 b)천창을 통해 내려오는 빛과 식당
<그림 6> 로지아 주변의 내부(출처: Emilio Pizzi, 앞의 책 p.141)

슈페리온 주택은 언덕의 급경사면이 평탄한 대지로 시작되는 면에 넓은 대지를 남향하여 놓여 있다<그림 4>. 언덕 아래의 대지를 향해서는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면서도 마치 오래전부터 놓여 있었던 뿌리 깊은 바위와 같은 안정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남향의 굴곡진 전면 벽체와 은빛으로 채색하여 45°각도로 쌓은 콘크리트 블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빛의 산란을 유도하여 강렬한 태양 아래의 대지에서 건물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³⁵⁾

주택 내부는 전체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체험을 강조한 공간 구조를 지닌다. 3층의 침실은 벽체에 의해 안정된 장소를 형성하며 절제된 개구부를 지닌다. 2층의 거실과 식당은 전면 창과 로지아를 통해 대지의 전경을 흡수하며, 천창에서 시작된 빛의 흐름은 계단과 보이드 공간을 타고 내려와 거실과 식당의 특별한 장소감과 결합된다. 주택 내부를 관통하는 수직적 흐름은 계단을 통해 맨 아래층의 서재로 모아진다. 이 어둠의 공간은 남측의 13개의 원형 창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특별한 공간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서재는 개인적인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성격과 부지가 갖는 특성을 결합하여 주택의 출입구에서 가장 낮은 지하에 위치시킴으로써 특별한 개인적 장소를 형성하고 있다.

3.3. 무어 주택의 장소성 구현

건축가이자 이론가인 무어는 건축가가 가져야 할 고유의 관심사는 장소의 창조라고 하였다. 그것은 형태적 관심에 많은 것이 좌우되는 건축언어로는 얻기 힘들며, 건축과 기본적인 욕구 사이의 절충에 따라 충족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장소를 만드는 것은 지상의 특정한 위치에 인간의 자아를 질서 있게 새겨놓는 일이라고 하였다. 작은 주택의 장소성은 각기 다른 특수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만큼 건축주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건축설계에 반영하였다.

무어는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공동사회의 전통과 체제의 합의를 따를 때 장소성은 확보된다고 하였다. 주택이 입지해야 할 적절한 장소는 환경과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환경 역시 주택과 똑같은 관계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³⁶⁾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방의 질서, 기계의 질서, 꿈의 질서를 통해 주택의 장소성을 설명한다.³⁷⁾ 주택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방의 개념을 중시하는데, 조명(자연광)·조점(난로, 식탁, 침대 등)·조망 등이 장소를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꿈의 질서는 거주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며 이것은 장소의 형성에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주택, 거주인의 관심을

35)C. Moore, 앞의 책, pp.3~45

37)위의 책, pp.63~131

35)Emilio Pizzi, BOTTA · The Complete Works, Artemis, 1993, pp.138~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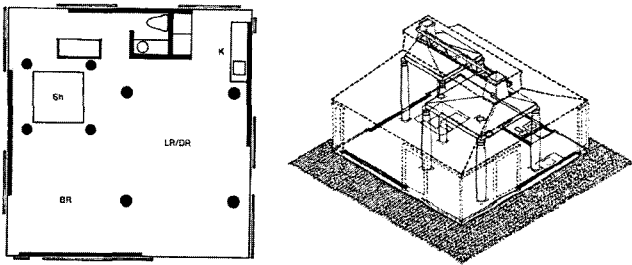
쏟아 부을 수 있는 주택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택은 특별한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1) 무어 주택(Moore House, Orinda,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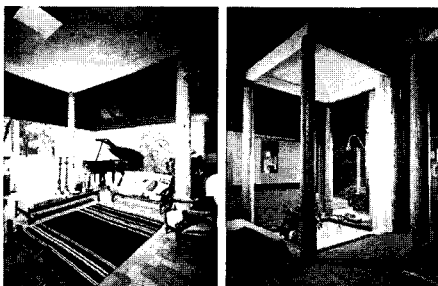
<그림 7> 오린다의 무어 주택의 전경
(출처 : Heinrich Klotz, 현대건축론, 양동양 역, 기문당, 1994, p.170)

오린다의 무어 주택은 전체적으로 정방형의 평면, 하나의 지붕, 그리고 방 한 칸으로 구성된다. 내부공간은 8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각기 다른 크기의 2개의 에디컬러에 의해 중심성을 획득한다. 이곳은 인간의 원형적인 장소에 대한 개념을 상기시키는 4개의 기둥과 천개(天蓋)로 이루어졌으며, 상부에서 스며드는 빛에 의해 특별한 장소성을 형성한다. 커다란 에디컬러는 거실과 식당의 영역을 한정하며, 이곳은 이 주택의 원심적 중심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주택의 코너에는 벽체가 없고 한 두 개의 벽은 큰 미닫이 창문처럼 옆으로 열 수 있다.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은 벽체의 바닥부터 처마의 바로 밑에까지 이른다. 이를 통해 주거의 중심성은 주변의 잔디와 숲으로 확장하게 된다<그림 8, 9>.



<그림 8> 평면도와 투상도(출처 : Heinrich Klotz, 앞의 책, p.170)

정지(整地)되어 있는 대지의 주변은 울창한 떡갈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체적인 형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방형의 파빌리온이다. 원초적인 형상과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된 외부는 그 친밀감으로 인해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그림 7>.



<그림 9> 주택 내부
(출처 : Gerale Allen, Charles Moore, 국제서적, 1983, pp.27-29)

거실 영역은 별도의 지붕에 의해 위요되고 안락한 장소로서 거주자의 정주 혹은 손님과의 동석을 특별한 인상으로 만든다. 이는 거주인의 일상생활을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로 승화시켜 주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가의 의도이다. 거실 한 귀퉁이에는 무어가 “흥을 들게 하는 곳”이라고 명명한 곳에 피아노가 놓여 있다. 이것은 내부의 또



<그림 10> 본햄 주택 전경과 단면도(출처 : G. Allen, 앞의 책, p.9 / E. J. Johnson, 앞의 책, p.100)

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자연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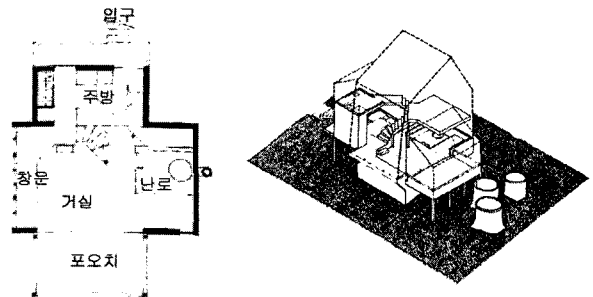
다른 하나의 작은 천개는 욕실의 영역이다. 다른 영역의 가구 배치가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반면에 이곳은 명확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이 집의 거주자이기도 한 찰스 무어에게 아침의 샤워는 흥미로운 행사이다.³⁸⁾ 폐쇄적인 욕실로부터 개방된 이곳은 개방된 공간, 또 하나의 천개 그리고 천장의 빛에 의해 아늑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주택 내부의 전체적인 인상은 어둡게 착색된 지붕의 천장, 하얗게 칠해진 2개의 파빌리온의 천장, 그리고 미닫이문을 설치한 모서리부분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에 의해 신비하면서도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한다<그림 9>.

(2) 본햄 주택(Bonham House, California, 1962)

무어가 추구한 주택은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집을 일컫는다. 즉, 무어에게는 각각의 거주자가 주거인에게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각각의 장소에 그 거주자들이 군집하여 거주 집단을 만드는 사실이 관심이었다. 주거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의 사례인 무어의 집을 비롯한 몇몇 초기의 주택에서 사주(四柱)식 에디컬러가 변형된 형태로 사용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거주장스럽지 않은 간결한 공간을 중앙에 놓고, 그 주위에 특정한 용도를 가진 공간을 마치 좋은 새들백과 같이 장식하는 것이다.

본햄 주택은 주공간인 중앙의 거실을 중심으로 주변의 공간을 배치하여 원심적 중심공간을 조성하였다. 주택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공간은 실제 규모 이상의 공간적 질을 내포하고 있다. 거실의 면적은 불과 4.3㎡에 불과한데, 천장을 최대한 높이고 창을 내어 공간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있다. 거실에 면한 작은 새들백의 공간은 차양이 달린 포오치(porch)이다.



a) 평면도 b) 투상도
<그림 11> 도면(출처 : E. J. Johnson, 앞의 책, p.100 / G. Allen, 앞의 책, p.16)

38)Heinrich Klotz, 현대건축론, 양동양 역, 기문당, 1994, p.172

거실과 포오치는 미달이문으로 분리되는데, 이것을 열면 거실은 자연과 연결된다. 거실의 원심적 중심성은 외부로 개방된 창호를 통해 자연으로 확장하고 있다<그림 10, 11>.



a) 거실의 전경 b) 출입구와 계단
<그림 12> 내부(출처 : G. Allen, 앞의 책, p.16)

이 주택은 지역 학교의 여교사를 위하여 설계된 별장 주택으로 삼나무 그늘이 인상적인 언덕위에 지어졌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변의 오두막집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값싸고 얇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주거 내부에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주택의 전체 매스는 들어 올려졌으며 숲에 묻혀 있는 자연스러운 형상을 취하고 있다<그림 10>.

주택 내부의 벽체는 하얗게 도색되어 밝은 빛을 집안으로 투사시키도록 계획되었다. 거실 창가에 아담한 휴식공간을 배

치하고 난로를 거실과 면한 2층 다락방의 밑에 설치하였다. 난로 주위는 거실 보다 한 단계 낮은 바닥이며, 낮은 천장에 의해 아늑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그림 10, 11>. 외부와 면하는 포오치, 난로 주변의 공간, 창문 하부의 불박이 의자, 2층의 다락 등의 보다 인간적인 작은 부속 공간들을 장소의 특성과 심리적 체험을 고려하여 중심 공간인 거실을 주위로 배치하였다. 거실의 주색은 흰색으로, 출입구와 굴뚝은 옐로우색으로, 계단은 자주색으로, 난간은 푸른색으로 도색하고 따뜻한 질감의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가구와 기물을 배치하여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그림 12>.

4. 결론

본 연구는 슐츠의 실존적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주거공간의 장소성 개념을 파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장소성의 구체적인 표현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결과 주거공간의 실존적 장소성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종합분석표

주거의 장소 형성 (이론적 틀)	보타의 주택		무어의 주택	
	카테나조 주택(티치노, 1971)	슈페리온 주택(티치노, 1983)	무어 주택(오린다, 1962)	본협 주택(캘리포니아, 1962)
(1) 주거 내부의 공간 조직 -중심(구심력, 원심력) -방형(수평성, 수직성) -영역(위요, 개방) -경계(개구부)와 관련	-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직선형 평면 선택 - 개구부를 통해 자연을 받아들인 수평축과 테라스 주변의 수직축을 통해 내부 공간을 통합, 지배 - 남북을 관통하는 실내의 기둥과 벽체를 통한 질서 획득 - 주거의 각 실을 적절히 위오하는 벽체의 존재 -동, 북측면의 개구부와 테라스를 통해 하늘과 대지를 받아들여 내, 외부 공간을 통합	- 천장에서 로지아에 이르는 수직축 / 거실-로지아-주변공간을 연결하는 수평축이 내부 공간을 지배 - 육중한 벽체에 의한 영역의 형성, 대비되는 부분적인 개구부를 통해 내부공간을 조직 - 실내의 방, 거실, 식당, 서재 등의 독립된 영역의 형성 - 정면 파사드의 개구부를 통한 평야의 유입 & 천장을 통한 하늘과 태양 빛의 유입	- 정방형의 매스를 통해 내부공간의 중심성을 획득 - 에디컬러를 사용한 공간의 원심적 중심성 획득 - 에디컬러의 천장을 통한 빛의 유입과 수직성의 강조 - 주거내부를 지배하는 중심성의 자연으로의 확장(모서리를 비워두고 바닥에서 처마 밑까지 닿는 외부의 미달이 벽체와 문을 통해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수용)	- 중앙의 중심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세틀 백 개념 도입 - 중심공간을 감싸는 부속공간에 의한 영역성의 강조와 수직성의 획득 - 주거내부의 중심성이 전면의 창과 포오치를 통해 자연으로 확장(주변 자연과 아침의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실의 창 & 거실과 면하여 포오치를 설치하여 외부환경을 수용)
(2) 실존적 의미의 주거의 형상 -주변 환경을 통합하고 반영하는 구체적 형상으로서의 주거 a.주거의 외부 형상 b.지붕과 기단의 역할 c.재료와 마감 관련 d.경계(의장)와 관련	- 남쪽의 산맥과 북쪽의 경관을 접하는 기존의 포도밭 경사면에 건립 - 존재감을 나타내는 단순하고 순수한 콘크리트 블록은 존재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주변 지역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 평탄한 대지와 언덕의 급경사면에 놓이며, 넓은 평야를 남향하는 대지에 건립 - 대지에 안정된 형상과 더불어 존재감을 나타내는 단일 블록의 매스 - 지역성을 고려한 형상을 지니며, 태양을 고려한 전면부의 빛나는 콘크리트 블록을 통해 존재감 획득	- 주변의 울창한 떡갈나무 숲의 주변 환경과 언덕 위의 평탄한 대지 위에 건립 - 내부의 에디컬러와 외부의 오두막 형태가 지니는 원초적 형상 - 지역성을 고려하여 사용되며,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마감재를 사용하여 친근감 획득	- 삼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위에 건립 -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매스를 끌어올리고 천장을 최대한 높임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오두막 형태 - 지역, 값싼 재료를 사용하여 친근감 획득
(3) 주거 내부 공간의 복합적 성격과 분위기 -주거 내부의 각 공간의 고유의 특성을 반영 -거주인의 개성 반영 -환경, 심리적, 현상학적 요인의 반영 -가구, 기물의 단계 연관 -경계(의장)와 관련	- 주요공간은 동쪽의 막혀진 외부벽체에 의해 위오되며 각 실은 적절한 가구와 기물의 배치에 의해 영역을 형성 - 석양의 감성적 느낌의 빛을 유리 불력을 통해 주거내부로 끌어들이어 주거의 주공간과 부속공간의 영역 형성	- 심리적 체험을 강조한 공간구조(천장의 하늘과 틈을 통한 경관/2층 경관의 연속적 체험) - 각 실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배치하고 적절한 폐쇄감과 개방감을 통해 분위기의 획득(방의 안정감, 거실의 편안함, 서재의 개인적 장소 고려) - 주거내부의 각 실을 규정하는 적절한 가구와 기물의 배치(벽난로, 식탁, 소파, 침대)	- 인간의 원형적 공간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의 공간 추구 - 원형적 공간인 에디컬러, 거실과 욕실의 분위기 그리고 거주인의 성격과 체험을 결합하여 장소성 획득 - 환경, 심리적 요소를 고려함(천장의 부드럽게 착색된 도장, 따뜻한 소재의 실내 마감) - 비교적 자유로운 평면에서 가구 또는 기물에 의한 장소의 형성(거실의 소파, 피아노, 침대 등)	- 거주인의 생활방식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 - 심리적 체험을 중요시한 공간 배치(2층의 다락방과 거실의 낮은 천장 밑의 벽난로) - 심리를 고려한 내부공간의 채색과 따뜻한 소재의 소품 사용(빛을 투사하는 거실의 흰색 벽체, 출입구·굴뚝의 옐로우색, 푸른색 난간, 자주색 계단 등) - 가구와 기물의 적극적인 사용에 의한 장소 형성(거실의 불박이 의자, 다락방)
총체적인 실존적 장소성의 획득	(1) 주변의 대지와 하늘의 특성이 내부공간의 수평, 수직의 질서를 규정하며, 육중한 벽체와 절제된 개구부는 주변 환경을 통합 (2) 존재적 독립 형상을 지니며, 지역성을 고려한 재료의 사용 (3) 주거내의 각 장소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며 빛과 주변의 자연을 경험하는 현상학적 특성을 중시	(1) 에디컬러, 세틀 백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의 중심성과 원형적 장소성을 획득하고 넓은 개구부를 통해 주변으로 확장을 유도 (2)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 형태와 재료의 선정 (3) 원형적 공간을 중시/ 거주인의 개성 존중/ 환경·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색채와 재료를 사용/ 가구·기물의 적극 활용	(1) 에디컬러, 세틀 백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의 중심성과 원형적 장소성을 획득하고 넓은 개구부를 통해 주변으로 확장을 유도 (2)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 형태와 재료의 선정 (3) 원형적 공간을 중시/ 거주인의 개성 존중/ 환경·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색채와 재료를 사용/ 가구·기물의 적극 활용	(1) 에디컬러, 세틀 백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의 중심성과 원형적 장소성을 획득하고 넓은 개구부를 통해 주변으로 확장을 유도 (2)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 형태와 재료의 선정 (3) 원형적 공간을 중시/ 거주인의 개성 존중/ 환경·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색채와 재료를 사용/ 가구·기물의 적극 활용

첫째, 장소성을 지닌 주거는 주변 환경을 구조화하는 내부공간의 중심성, 방향성 그리고 영역성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내부공간의 영역을 위요하는 벽체와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개구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실존적 주거공간은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간 존재의 반영이다. 진정한 장소성을 지닌 주거는 어떠한 주변 환경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으는 형상을 지닌다. 이는 건축물의 형태학적 측면과 외부 벽체를 형성하는 경계면의 의장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셋째, 실존적 의미의 주거의 장소성은 내부공간의 성격, 분위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이는 내부의 각 공간의 고유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거주인의 특성과 공간에 대한 체험자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장적 측면과 가구, 기물의 단계가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보타와 무어의 주택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표 2>.

보타의 티치노 지역의 주택에 나타나는 실존적 장소성의 표현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 환경과 대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수평, 수직의 축은 주거의 평면을 결정하며 내부 공간의 질서를 구축한다. 내부공간은 태양을 받아들이는 천장에서 로지아에 이르는 수직성과 정면 파사드의 커다란 개구부를 통해 들어오는 경관의 시각적 수평성에 의해 통합된다.

둘째, 육중한 벽체를 지닌 단일 볼륨의 매스는 존재감을 나타내는 형상을 지닌다. 주변의 토속주택을 재해석하여 건물의 형태와 재료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을 환기시킨다.

셋째, 주거 내부의 각 장소는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각 층에 위치하며, 위요하는 벽체와 가구와 기물에 의해 영역을 형성한다. 또한 태양과 주변의 자연 환경에 대한 현상학적 체험을 통해 장소성을 획득하고 있다.

무어의 초기 주택에 나타나는 실존적 장소성의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공간은 에디컬러를 사용하여 공간의 원심적 중심성을 강조하거나, 새들백의 개념을 적용하여 커다란 방을 중심으로 벽체와 부속공간이 위요한다. 이를 통해 중심성 뿐만 아니라 수직성을 강조하여 신성한 공간감을 유도한다. 넓은 개구부는 자연을 최대한 주거 내부로 끌어들이며 이를 통해 중심이 강조된 주거내부의 질서는 주변 환경으로 확장한다.

둘째, 주택은 울창한 산림 속에서 친근한 작은 오두막의 형상을 지니며,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보다 가볍고 얇은 재료와 마감재를 사용하여 친근한 형상으로 존재감을 획득한다.

셋째, 거주인의 개성을 중요시하였으며, 그것을 최대한 주거

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거주인의 성격과 체험을 고려하여 각실을 배치하고 여기에 인간의 원형적 공간을 이입하여 주거의 장소를 창조한다. 비교적 자유로운 평면에서 보다 인간적인 가구, 기물에 의한 장소 형성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자연의 색채와 대비되는 인위적인 색채를 내, 외부에 사용하여 인간의 환경, 심리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존적 개념의 장소성은 두 건축가의 주거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상이한 환경은 적절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내부공간의 질서를 구축하며, 존재감을 갖는 외부의 형상을 통해 반영된다. 최종적으로 장소성은 내부공간의 다양한 성격, 분위기에 의해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건축가의 장소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이 많은 관여를 하게 된다.

보타가 내부공간의 수평, 수직의 질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합하는 반면에 무어는 장소에 대한 인간의 원형적 공간을 도입하여 원심적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타가 독립된 외부의 형상을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주거내의 각 장소의 고유의 특성을 중시한 반면에 무어는 주변 환경과 친화적인 외적 형상을 통해 존재감을 획득하며 거주인의 개성과 감성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실존적 개념의 주거의 장소성을 토대로 범위를 넓혀 발전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현대 도시의 주거가 갖는 여러 문제점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소성을 지니지 않은 건축물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장소성 이론은 주거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의 해석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설계방법론으로써 그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길성호, 현대건축사고론, 시공문화사, 2001
2. 이광태, 건축, 환경, 인간,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3. Pizzi, Emilio, BOTTA · The Complete Works, Artemis, 1993
4. a+u MARIO BOTTA, 집문사, 1987
5. Moore, Charles, Allen, Gerald and Lyndon, Donlyn, 정해선 역, 주택의 장소성, 태림문화사, 1996
6. Schulz, C. N., 이재훈 역, 거주 개념, 태림문화사, 1995
7. Schulz, C. N., 정영수 역, 건축론, 세진사, 1987
8. Schulz, C. N., 이정국 · 진경돈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시공문화사, 1999
9. Schulz, C. N., 김광현 역, 실존 · 공간 · 건축, 태림문화사, 2002
10. Schulz, C. N., 정영수 · 윤재희 역,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세진사, 2002
11. Schulz, C. N., 민경호 외 3인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2001
12. Johnson, Eugene J., 박형진 · 최두원 역, 찰스 무어 건축과 평론, 공간예술사, 1991
13. Allen, Gerale, Charles Moore, 국제서적, 1983
14. Klotz, Heinrich, 양동양 역, 현대건축론, 기문당, 1994
15. Miller, Stuart & Schlitt, Judith K., 류호창 역, 실내디자인과 환경심리, 유편문화사, 2000
16. 이호진 · 김선주 역, 세계의 건축가 1 MARIO BOTTA, 건우사, 1985
17. 香山壽夫, 김광현 역, 건축의장강의, 국제, 2003
18. 류호창, 실내공간에서의 장소성 구현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7호, 1996.4

<접수 : 2005. 12. 31>